

추 모 사

오늘, 우리는 민족의 참된 지도자이셨던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 선생님의 탄신 120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의 유훈을 기리고, 본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항일 의병대장이셨던 기삼연 의병장으로부터 한학을 깨치신 선생님께서는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이듬해 3.1독립운동의 모의처가 된 중앙중학 교장에 취임해 학생의 가슴속에 민족의식을 불어넣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3.1독립운동 모의과정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하신 선생님께서는 이로 인해 1년 반의 옥고를 치르시고 출감하여 같은 해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신 후, 30여년 간 사장 고문 주필 등을 역임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또한 8·15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와 맞서 민족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시고, 수석총무가 되어 미군정에 협력하시다가 이승만 박사 및 임시정부 일부 요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광복직후 서거하시는 그날까지 누구보다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추진세력의 집결에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지셨던 관용과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지도층들은 소통을 위한 노력은커녕, 사리사욕과 당리당락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민과 민족을 위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이의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준 참으로 교훈적인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사회 지도층인사들은 진심어린 자성을 해야 하며, 국민들도 강도 높은 안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은 민족애를 발휘하여 가슴으로 품어야 하겠지만, 북한의 지배층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항상 경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천안함 격침과 금강산 내 부동산 동결조치로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남북관계는 언제나 협력의 정신 아래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민족사적 대계인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고하 선생님을 비롯한 지난날 풍찬노숙의 온갖 신고 속에서도 조국광복의 염원을 잊지 않았던 이 땅의 수십만 선열들의 유지를 이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하 송진우 선생님이시어!

부디 현재의 민족갈등을 넘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천상에서 음우하여 주옵소서.

삼가 옷깃을 여미고 명복을 빕니다.

편히 잠드소서.

2010. 5. 7

광복회장 김 영 일